

“우승 시스템 구축…임기내 목표 달성”



17일 오후 홈 구장인 광주-KIA 챔피언스필드를 처음 방문한 KIA 타이거즈 맷 윌리엄스 감독이 조계현 단장과 함께 경기장을 둘러보고 있다.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 찾은 맷 윌리엄스 KIA 감독

KIA 비전 ‘공감’…하나의 목표 향한 새로운 도전
‘준비된 팀’ 만들어 팬들이 즐거운 결과 보여줄 것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최초 외국인 사령탑으로 선임된 맷 윌리엄스 감독이 17일 오후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를 찾았다.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윌리엄스 감독은 곧바로 광주로 이동해 홈구장 곳곳을 둘러 본 후 “경기장이 무척 아름답다. 실내의 시설도 좋아 홈구장으로 쓰기 좋은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KIA를 ‘준비된 팀’으로 만

들겠다. 내일부터 ‘내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윌리엄스 감독은 메이저리그 스타 플레이어 출신으로 2014년 워싱턴 사령탑으로 내셔널리그 올해의 감독상을 받은 명장이다.

메이저리그 지도자 생활 대신 한국행을 선택한 그는 “조계현 단장과 그의 만남을 통해 KIA의 비전과 지향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뜻이 맞는 부분이 많아 즐겁게 일할 수 있을 거 같다. 무엇보다 새로운 도전, 새로운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겠다는 마음이 앞섰다”고 KIA

감독에 임하는 소감을 밝혔다.

윌리엄스 감독은 이어 “난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고, KIA에는 어린 유망주들이 많기에 같이 성장할 수 있다”며 선수단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는 “어느 팀이든 기본기가 탄탄해야 승리할 수 있다. 나는 천성적으로 공격적인 사람이다. 게임은 공격적으로 하되, 기본기가 탄탄한 야구를 해야 한다는 게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18일 합평에서 KIA 선수단과 상견례를 할 예정인 윌리엄스 감독은 “마무리캠프는 내년 스프링캠프를 준비하는 동시에 그동안 시즌에 부족한 점을 돌아보고 파악하는 시간이다. 코치와 선수들과 많이 이야기하며 팀 선수들을 알아가는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

2022년까지 3년간 KIA 선수단을 이끌 윌리엄스 감독은 “우선 우승을

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등 ‘준비된 팀’을 만드는 일을 곧바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등번호 9번을 받은 윌리엄스 감독은 “메이저리그에서 루키시절을 제외하고 선수와 코치로 뛴 때 대부분 9번을 달았는데 오를랜드 코치로 일한 (2018·2019년) 동안에만 다른 번호를 달았다. 오를랜드 9번은 영구결번 (레지 켄슨)이었다”며 등번호에 대한 일화도 소개했다.

힐만 전 SK감독과도 친하다는 윌리엄스 감독은 “한국에서 좋은 추억을 쌓았다는 힐만 감독처럼 한국 문화를 배워가며 나 역시 임기 내 우승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KIA 팬들의 뜨거운 열정을 알고 있다”며 “매일 최선을 다해 항상 이길 수 있는 플레이로 팬들과 함께 즐거운 결과를 만들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희중 기자



17일 서울 동대문구체육관에서 열린 제3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여자 플레테 단체전 준결승에서 광주선수단이 전북을 상대로 찌르기 공격을 하고 있다. 광주선수단은 이날 전북을 45대26으로 꺾고 결승에 진출했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제공

광주 역도 박광혁 대회新 ‘3관왕’ 전남 육상 이미옥 ‘3관왕 4연패’

제3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제3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출전한 광주선수단 박광혁(광주장애인역도연맹)이 17일 열린 남자 역도 -80kg급 예이트리프팅에서 187kg을 들어 올리며 대회신기록을 세웠다. 박광혁은 파워리프트와 종합합계에서도 172kg과 359kg의 기록으로 대회 3관왕에 올랐다.

2020 도쿄 패럴림픽 조정 국가대표인 김세정(광주시체육회)도 여자 수상개인전 1,000m PR1과 1,000m PR2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대회 2관왕을 차지했다. 김세정의 이날 기록은 종전 자신의 기록을 크게 앞당긴 것으로 내년 도쿄 패럴림픽 메달 획득에 청신호를 쏘았다.

광주선수단은 이날 무더기 다관왕이 배출됐다.

수영 여자 배영 50m에 출전한 한애자(광주장애인수영연맹)와 남자 평영 100m에 출전한 임창건(광주장애인수영연맹)이 각각 금메달을 목에 걸며 대회 2관왕에 올랐다.



이어갔다.

육상에 출전한 이미옥이 원반던지기에서 값진 금메달을 획득하며 ‘3관왕 4연패’라는 대기록을 달성했다. 사이클에서는 천상언(사진)이 남자 개인도로 75km 이내 C1 경기에서 금메달을 보냈다.

또 구기 종목인 전남장애인남자배구팀은 4강에서 인천팀을 꺾고 결승에 진출, 금메달에 도전한다. 남자 뇌성마비(7인제) 축구도 강호 인천을 제압하고 4강에 진출하는 양보를 전했다. 하지만 기대를 모았던 남자축구(약시)는 충남에게 1대2로 패해 아쉬움을 남겼다.

/박희중 기자

“北선수들 매우 거칠었다”

손흥민 “욕설 오갈 정도로 상대 예민…안 다친 것만으로 다행”

‘평양 원정’을 마치고 돌아온 한국 축구 대표팀 주장 손흥민(27·토트넘)은 북한 선수들의 플레이가 매우 거칠었다고 전했다.

15일 평양 김일성경기장에서 열린 북한과 2022 카타르 월드컵 2차 예선 H조 3차전을 마친 손흥민은 중국 베이징을 거쳐 17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했다.

백승호나 이강인 등 유럽파는 베이징에서 곧바로 소속팀으로 가는 비행기에 올랐지만, 손흥민은 연결 항공편이 마땅치 않아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는 “아쉬운 경기를 펼쳤다”며 “승점 3을 따내지 못해 안타깝다”고 소감을 밝혔다.

직접 볼 수는 없었지만, 북한은 거친 몸싸움으로 한국 선수들을 막아선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과 북한의 경기를 관전한 요아킴 베리스트롭 북한 주재 스웨덴 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영상을 올렸는데, 여기에는 경기가 과열되면서 선수들끼리 충돌하는 상황이 담겼다.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한국의 주장 손흥민은 북한의 리영직과 함께 선수들을 달리기도 했다.

손흥민은 “상대가 많이 거칠게 나왔다. 심한 욕설이 오가기도 했다”며 “북한의 작전이었을 수도 있지만, 누가 봐도 거친 플레이를 했고 예민하게 반응했다”고 전했다.

이어 “경기에 집중하기보다는 안 다쳐야겠다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됐다”며 “이런 경기에서 부상 없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평양에 머무는 동안 대표팀은 경기



북한과의 경기를 마치고 귀국한 남자축구 대표팀 손흥민이 17일 귀국해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등을 위해 이동할 때를 제외하고는 숙소를 벗어날 수 없었다.

손흥민은 “북한이 우리를 강팀이라고 여겨서 이런 행동을 한다고 생각했다”며 “외부적인 것보다는 경기에 집중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경기 하루 전에 평양에 들어가 피로감이 있었기 때문에 호텔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했다”며 “선수들도 다들 조심해서 행동했다”고 전했다.

선수들 대부분이 익숙한 천연잔디가 아닌 인조 잔디에서 경기를 치른 것에 대해서는 “축구선수로서 잔디 밟을 하는 것은 핑계”라면서도 “선수들이 100% 기량을 보여줄 수 없었던 환경이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손흥민은 “좋은 원정만 있을 수는 없다. 선수들도 스태프들도 모두 고생이 많았다”며 “한국에서 펼쳐지는 경기에서는 좋은 기량으로 꼭 승리를 따내겠다”고 다짐했다.

/연합뉴스



17일 열린 ‘더 CJ컵 @ 나인브릿지’ 1라운드 경기에서 안병훈이 9번홀 티샷을 하고 있다.

/JNA골프 제공

안병훈, 1R 단독 선두 더CJ컵 8언더파…2위와 1타차

안병훈(28)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더 CJ컵 1라운드를 단독 선두로 마쳤다.

안병훈은 17일 제주도 서귀포시 클럽 나인브릿지에서 열린 대회 첫날 1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8개를 뽑아내며 8언더파 64타를 기록했다.

7언더파 65타인 단독 2위 호아킨 니만(칠레)을 1타 차로 따돌린 안병훈은 단독 1위로 2라운드를 맞게 됐다.

2017년 창설된 더 CJ컵에서 한국 선수가 라운드 종료 시점에 선두에 나선 것은 이날 안병훈이 처음이다.

한국 선수의 더 CJ컵 역대 최고 성적은 2017년 김민휘(27)의 4위다.

한국 선수들은 1라운드 상위권에 대거 이름을 올리며 3년째인 이 대회 첫 우승 가능성을 밝혔다.

안병훈 외에 황준근(27)이 5언더파 67타로 공동 4위에 올랐고 임성재(21)와 이수민(26)도 나란히 4언더파 68타, 공동 9위로 1라운드를 마무리했다.

10위 안에 한국 선수가 4명이 들어있고 교포 선수 대니 리(뉴질랜드)도 5언더파 67타로 공동 4위에 이름을 올렸다.

/연합뉴스



광주FC 펠레페가 지난 4월7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안양과의 경기에서 수비수를 제치며 드리블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광주FC, 안양 잡고 ‘두번 웃자’

내일 안방서 ‘복수혈전’…다익리트 승격 ‘한걸음 더’



경기장에서 FC안양과 33라운드 홈경기를 치른다.

광주는 올 시즌 종료까지 4경기를 남겨 둔 현재 19승10무3패(67점)로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다. 특히 2위 부산과 승점 7점차를 유지하면서 앞으로 2경기에서 승리할 경우 자력으로 조기 우승을 확정하게 된다.

프로축구 광주FC가 FC안양을 상대로 복수혈전을 펼친다.

광주는 19일 오후 1시 광주월드컵

경기장에서 FC안양과 33라운드 홈경기를 치른다. 광주는 안양에게 진 대패의 빔을 갇기 위해 2주간의 휴식기동안 이를 악물며 정신 무장과 득점력 강화에 힘썼다.

분위기는 좋다. 광주는 올 시즌 홈 무패행진(11승 5무)과 함께 최근 4경기 모두 승리를 가져가는 등 안방에서 극강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중심에는 브라질 듀오 펠리페와

윌리안이 있다. 팀 내 최다 득점자(17골)이자 주포 펠리페는 복귀 후 득점과 함께 투톱 파트너 김주공과의 호흡은 물론, 2선 자원들과의 연계플레이로 상대 골문을 끊임없이 조준한다.

윌리안은 최근 5경기에서 4골 1도움을 기록, 물오른 경기력으로 에이스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여기에 부주장 여름을 비롯해 최준혁, 아슬마토프, 여봉훈 등이 복귀하는 등 광주는 최상의 전력으로 안양을 상대할 예정이다.

상대인 안양은 올 시즌 활발하고 역동적인 축구를 선보이며 3위에 올라있다. 광주가 안양을 꺾고 설욕 성공과 함께 승격 목전으로 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희중 기자